



간호교육에서 영화의 활용에 관한 고찰: Cinemeducation

오진아¹⁾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역량(competency)’이라는 용어가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에서 향후 학교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은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주요한 흐름으로서 간호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간호역량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으며(김미원, 2006), 2006년 제1주기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간호역량은 전인간호, 비판적 사고, 전문직업관, 지도력, 의사소통술, 숙련된 간호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간호평가원, 2010).

역량기반 교육의 특징은 실제적인 역할을 분석한다는 것인데, ‘역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하여 행동주의와 인문주의 교수이론의 두 가지 접근이 있다(소경희, 2009).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행동주의 접근은 20세기 초에 등장하였는데, 역할의 구체적인 행위나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문가로서의 교수가 미리 목표한 반응행동으로 학습자를 이끌어가는 것이다(소경희, 2009). 그러나 이는 ‘교육’이 아닌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명근, 2005; Northington, Wilkerson, Fisher, & Schenk, 2005). 이러한 행동주의 교수원리에 반하여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역할의 지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인문주의 교수이론이 제시되었다(소경희, 2009). 그러나 최근에는 행동주의 교수원리나 인문주의 교수이론에 근거한 소위 객관주의 패러다임의 전통적인 교육들이 진정한 ‘교수·학습의 효과성’이라는 차원에서 강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다소 상이한 접근방법이 강구되고 있다(이명근, 2005).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알아가기 이론’ 혹은 ‘의미 만들기 이론’이라고 부르는데(강인애, 1998), 구성주의 학습의 최종목표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나 지식이 아닌 개인이 현실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있어 본인에게 의미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지식과 진리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장혜림, 2007), 인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강인애, 1998). 이러한 구성주의 접근방법은 교수가 미리 결정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습목표대로 일방향적인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수준 등을 고려해서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강인애, 1998; 이명근, 2005; 장혜림, 2007).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수업과 관련하여 많은 자율성과 선택권이 부여되며, 학습자는 동료들과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게 된다(장혜림, 2007). 실제로 환자와 대면하여 치료적인 의사소통과 비판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문제해결과 전인간호를 수행해야하는 간호학생들에게는 한 인간으로서의 환자에 대한 이해와 학생 자신에게 의미있는 전문직업관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서도 핵

주요어 : 영화, 교육, 간호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건강과학연구소(교신저자 E-mail: ohjina@inje.ac.kr)
 투고일: 2010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4일

심간호역량에 바탕을 둔 간호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의미를 탐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교육 관점에 근거를 두고 학습해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 학습은 전통주의 학습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형성된다는 하나의 대안적 관점이다(박지은, 2006). 구성주의 학습은 학생들이 의문을 갖고 해결해나 가도록 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기초 자료의 원천이나 직접 다루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많은 교육자료 중에서 영화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유용하게 조성해줄 수 있다(박지은, 2006).

교육에서의 영화 활용이란 영화가 시청각 도구로서 단지 교수-학습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영화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영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문맥과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하고 여러 지식 영역을 넘나드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인지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킨다(이명근, 2005). 이는 영화감독이나 제작자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만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문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자로서 반응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컴퓨터와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과 보급의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특성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교육영역의 현상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선 초·중등과정의 교육현장에서 ICT 활용을 위하여 대부분의 교실마다 프로젝션 TV나 빔 프로젝터가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과목에서 멀티미디어 수업을 잘 활용하고 있다(김영한, 계보경, 양혜경, 2003). 그리고 CD-ROM, DVD,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영상자료나 영화가 강의나 실습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흥미롭고 사실성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기능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백경숙, 2009). 이러한 영상자료나 영화는 문자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학생들의 의식을 파고들고 있다(김하강, 2010).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학습형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짧은 강의나 동영상, 그리고 TV나 영화의 익숙한 자료를 선호한다고 하여 영화가 간호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교육매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Hyde & Fife, 2005). 특히 교훈적인 교육영화나 이론 수업을 대신하는 교과서적인 영상자료보다는 상업영화나 대중소설을 교육매체로 사용했을 때 더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Northington,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와 영화교육, 영화의학교육의 정의 및 영화의 교육적인 활용 측면을 살펴보고 국외 간호교육에서 영화를 적용한 실제 사례와 간호교육에서 영화 활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성주의 접근에 입각하여 영화를 새로운 간호교육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

영화, 영화교육,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의 정의

영화는 1895년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frères Lumière)에 의해 탄생한 시네마토그래프와 미국의 에디슨이 만든 바이타스코프 등이 1897년에 일본에 들어온 이후 우리나라에도 상업적인 흥행물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위키백과, 2010). ‘영화(映畵)’는 한자어로 ‘비추어진 그림’이라는 뜻으로 ‘그림’이라는 종래의 예술 형태와의 유사함을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시네마(cinema), 독일에서는 키노(kino), 미국에서는 필름(film)이라고 부르며, 그 밖에도 키네마(kinema), 모션 픽처(motion picture), 무비(movie)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그런데 영화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은 공통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부른 것도 영어의 ‘motion picture’를 직역한 것이다. 즉 영화는 ‘동적인 움직임의 재현 또는 재생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성원, 고훈만, 1999).

김도일(2004)은 영화의 매체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영화는 상업적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또는 바람직한 관객의 정신적 이미지’를 영화제작에 활용한다. 둘째, 영화는 이데올로기의 전파자이다. 영화를 보는 대상이 대중들이기 때문에 영화는 사회의 공통적인 사고와 개념구조를 담고 있어서 영화가 주장하는 논리에 빠져들기 쉽다. 그래서 영화 안에 메시지를 담아 대중을 선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의도적인 사회화의 주요 기관이다. 영화는 현대사회에서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교육목적에 따라 활용할 때 학습자들에게 흥미롭고 의미있는 메시지의 전달과 함께 교육목표 달성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교육은 ‘영화자체에 관한 교육(film-teaching)’과 ‘도구로서의 영화교육(teaching film)’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영화 만들기’ 교육, 후자는 ‘영화 읽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일, 2004). 영화 만들기는 영화제작 과정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영화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과는 상당히 다른 창의적이며 공동체적인 작업과정이다(이미식, 이태윤, 2008). 그러므로 영화 만들기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시작해서 각자 창조적인 과정을 거쳐 조화롭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려한 영상과 음향으로 채워나가며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이미식, 이태윤, 2008).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영화 읽기’이다(Charon, 2001).

영화 읽기는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영화를 텍스트(text)로, 다른 하나는 컨텍스트(context)로 여기는 것이다(이미식, 이태윤, 2008). 영화를 텍스트로 여기는 것은 영화에 대한 기법, 제작과정, 이론적 틀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고, 영화를 컨텍스트로 여기는 것은 영화가 생산되는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맥락과 관련시켜서 영화를 이해하는 것이다(이미식, 이태윤, 2008). 영화를 컨텍스트로 간주한 영화 읽기는 다시, 영화의 메시지 분석을 통한 교훈적인 지식의 깨달음을 촉진하는 순수교육적인 차원과 교육내용의 일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영화를 적극 활용하는 교육공학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박지은, 2006). 영화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영화를 교육매체로 하여 영화 읽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은 영화(cinema)와 의학 교육(medical education)의 합성어이다. 이는 Alexander(1995)가 처음 언급하였는데, 그는 영화의학교육을 ‘의학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의 환경적인 측면을 교육하기 위해 영화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인 쟁점을 이해하는데 깊이를 더하고 상상력과 감정이입, 힘, 그리고 내러티브를 끌어올려준다고 하였다.

간호교육에서 영화 활용의 영역

구성주의 교수-학습 접근으로 핵심간호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다면 역시 ‘영화 읽기’ 방법일 것이다. 간호교육에서의 영화 읽기는 영화를 컨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은유와 상징, 신화(myth, 통념)의 의미 매체로서 영화를 파악하는 것이다(이미식, 이태윤, 2008). 즉, 영화를 컨텍스트로 읽는 능력은 영화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 교육계에서는 구성주의 접근에 더욱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의학교육에서는 이를 ‘내러티브 의학(narrative medicine)’ 이라고 하여 환자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석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치유를 제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Charon, 2001). 그리고 간호교육에서도 영화는 이론 수업과 실습 영역 모두에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핵심간호역량을 획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이론수업에서의 영화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수업방법인 ‘소집단 토론’에 사용될 수 있다(Alexander, Lenahan, & Pavlov, 2005; Carpenter, Stevenson, & Carson, 2008; Northington, et al., 2005). 영화라는 소재는 자칫 비활성화되기 쉬운 토론 수업에서 효율적인 집단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백경숙, 2009). 예를 들면 성장 영화, 가족드라마 등을 통해 개인과 가족발달주기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인간성장발달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간호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와 전문직업관에 대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질병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옥의 티(과학적 오류 또는 간호개념의 오류) 찾기’와 같은 학습활동으로 영화에 숨겨진 병태생리, 임상증상, 그리고 간호의 이론적인 개념을 발견하고 연구하게 함으로써 더욱 흥미롭게 간호학에 접근할 수 있다. 이로써 ‘영화를 활용한 간호교육’은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의 한계와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영화는 실습 영역에서 더욱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간호학생들이 처음 임상실습현장에 나가면 많은 질병과 불구,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만나면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Northington et al., 2005). 임상실습현장에서 만난 환자의 과거 경험,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상태, 종교와 문화적 신념, 질병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만성질환이나 불구를 가진 환자들이 질병과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생각, 정서, 느낌을 파악하는 것은 전인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Alexander et al., 2005). Alexander 등(2005)은 환자 치료의 핵심은 다양한 근경에 처한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며 영화는 이를 위한 매우 유용한 교육매체라고 하였다.

심리사회적인 요소가 환자의 건강이나 질병 상태에 훨씬 더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Northington et al., 2005).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에게는 환자의 정신·신체적인 증상(psychosomatic symptom)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환자의 다양한 상황에서 기대되는 정서적인 반응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은 환자의 뜻하지 않은 정서적인 반응에 당황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더욱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간호학생들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생활방식과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고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하

건 허구이건 간에 학습자들이 영화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쟁점을 다루고 감정이입기술을 증가시킬 수 있다 (Alexander, 1995).

또한 영화는 실습교육에서 치료적인 의사소통술을 획득하는데 매우 유용한 매체가 된다. 내러티브는 곧 ‘이야기’이다. 전형적인 영화 속 인물들은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후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에게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Charon, 2001). 의료진은 환자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한 즉시 치료적으로 참여해야 한다(Mattingly & Garro, 2000).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 등장이 많은 영화를 선택한다면 간호학생들은 영화 속의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오고가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되새김으로써 치료적인 의사소통술을 학습할 수 있다(Greenhalgh & Hurwitz, 1998). 뿐만 아니라 간호중재로서 숙련된 간호술을 습득하기 위한 동기과 흥미의 유발을 위해서도 영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무언가 걸렸을 때 하임리히 방법을 사용하거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은 정확한 기술의 훈련과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간호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효과는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고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하겠다(이명근, 2005). 영화의 유용성은 무엇보다도 단순지식이 아닌 고등 인지기능 즉, 비구조화된 학습과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강인애, 1998; 박지은, 2006; Carpenter, Stevenson, & Carson, 2008; Northington et al., 2005). 간호교육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특정 개념이나 원리만을 단순히 적용해서는 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는 비구조화된 학습과제로 나타난다. 이 때 학습자의 유연한 인지기능을 촉진시킴으로써 능동적인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구성주의 접근은 다양한 사례나 현상들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표현을 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강인애, 1998).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영화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사례를 여러 방식으로 관찰하거나 토론함으로써 학습자는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유연한 문제해결자가 된다(김지훈, 2007). Higgins와 Dermer(2001)는 영화 속 환자들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중재계획을 제시하고 과연 문제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적, 개념적, 기술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영화를 활용한 간호교육은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핵심간호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복적인 영화 읽기를 통해서 실제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고, 환자에 대한 학습자의 감정이입의 정서가 증가되며, 의사소통술이 향상됨으로써 환자와의 내러티브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다(Mattingly & Garro, 2000).

간호교육에서 영화 활용의 장단점

간호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유머와 웃음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간호교육 과목이 심각하거나 무미건조하고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하지만 이를 학습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유머와 웃음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시도할 수 있게 해 준다(Alexander, 1995). 특히 상업적인 영화는 지나치게 교훈적인 무거운 내용 때문에 청중을 무감동하게 만들어버리는 소위 ‘교육 영화’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다(Northington, et al., 2005). 영화제작자들은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고통스럽고 심각한 주제를 다룰 때조차 유머를 적절히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웃음이 있는 영화는 학습활동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어 학습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간호교육에서 영화 활용의 또 다른 장점은 영화는 사실(실제)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학습자들은 영화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소통 할 때 전문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참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 지나친 감정이입이나 부정직한 토론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비치료적인 대화로 이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영화 속 인물들과 그들에게 벌어진 문제가 사실과 흡사하지만 실은 허구이며 스크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연하고 담담하게 토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화는 과거 20년 동안 건강관련 전공 학생들, 간호사, 의사, 상담가, 사회학자 등을 위한 교육에 영화를 활용하였다(Silenzio, 2002).

마지막으로 영화 활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현재 간호교육이나 의학교육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위해 실제 환자나 표준화된 환자를 이용하고자 할 때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표준 환자를 교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제작된 시나리오 편집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Northington et al., 2005).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교육도구인 영화도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화는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과는 미묘한 차이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제작자나 감독의 현실성 확인과 충분한 고증이 우선되었겠지만 사실성이

떨어지는 장면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현실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영화를 자신의 독특한 눈으로만 보고 있고 아직 그것을 실제 임상실습과 분명하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Northington et al., 2005), 영화만으로 임상경험을 완전히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실제 임상실습 교육을 병행할 때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활용의 단점으로는 영화가 학습자 개인의 해결되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쟁점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Northington et al., 2005).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일부 학습자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유사한 사건이나 죽음, 질병 등에 직면할 때 영화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활발한 토론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령 그렇다하더라도 감정을 통제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함양하는 측면에서도 영화 활용은 더욱 효과적이다.

간호교육에서 영화 활용의 실제

간호교육에 영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환경으로 VCR이나 DVD 플레이어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동영상 재생기를 사용하여 컴퓨터로도 영상을 손쉽게 재생할 수 있다(백경숙, 2009). 더군다나 요즘 학습자들은 컴퓨터 기반 학습매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김영한, 계보경, 양혜경, 2003), 강의실이나 실습실에서의 영화 활용은 용이하다.

영화는 주로 동시대의 인기있는 휴먼드라마나 코미디 장르의 상업적인 영화가 유용하다. 왜냐하면 배우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을 이끄는 훌륭한 연기를 해내기 때문이다(Alexander et al., 2005). 영화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잘 알려진 할리우드 영화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Fair Use Doctrine)'에 따라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 영화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화의 전체를 보게 하거나 영화의 부분을 보는 것을 논의해야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학교육에서는 영화의 부분적인 클립이나 장면을 사용하여 영화의학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고(Alexander et al., 2005), 간호교육연구로는 영화의 전체를 감상하고 간호학 수업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다(Carpenter et al., 2008; Northington et al., 2005).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Northington 등(2005)은 우선 교육목적에 맞는 영화를 선택하고 시놉시스를 확인한 후 학생들에게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영화 감상 후에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1)이 영화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2)이 영화가

미래의 간호사로서 당신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실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3)다른 의료인이나 건강관리전문가들에게 이 영화를 권하겠는가? 아울러 Northington 등(2005)은 아동간호학 영역에서 간호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화로 Elephant Man(1980), Lorenzo' Oil(1992), Marvin's Room(1996), Mask(1985), Mr. Holland's Opus(1995), My Left Foot(1989), Patch Adams(1999), Rain Man(1988), Simon Burch(1998), What's Eating Gilbert Grape(1993), The Other Sister(1999) 등을 소개하였다.

Carpenter 등(2008)은 통증관리에 대해 영화 Wit(2001, Mike Nichols 감독)를 보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인간미 없는 여교수 비비안(Emma Thomson)이 암에 걸리면서 투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Wit에서 그들은 4가지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는데, (1)통증과 관련된 환자의 행동 파악하기 (2)인물들 사이의 인간관계 발견하기 (3)통증관리에 대한 잘못된 증거 발견하기 (4)건강제공자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과 장애물 파악하기 등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간호학생들은 4가지 학습목표를 달성했음은 물론 통증사정과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신념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 등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은 환자를 존엄과 위엄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해야하며 환자 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해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의료전달시스템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Carpenter et al., 2008). 간호학생들은 영화를 보면서 주어진 학습목표 외에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 스스로 의미와 가치 등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Alexander(1995)는 영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장면으로도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학습자들에게 영화를 보고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영화의 전체를 감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수업을 시작할 때 유인물로서 영화의 시놉시스를 제공하여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Alexander와 Waxman(2000)은 치료적인 의사소통술을 위한 교육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선택한 영화의 일부를 두 번씩 보게 하는데, 처음엔 음향 없이, 다음엔 음향을 넣어서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학생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언어와 비언어적인 정보의 병합으로 의사소통술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무엇을 보았는가? (2)무엇을 들었는가? (3)무엇을 느꼈는가? (4)무엇을 생각했는가? (5)미래에 같은 상황의 환자와 대면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Table 1> Example 1 of cinemeducation – Discipline*

Category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Subcategory	Discipline
Theme	Child testing limits
Title	Kramer vs Kramer
Actors	Dustin Hoffman, Meryl Streep, Justin Henry
Synopsis	This film depicts the struggles facing a successful marketing executive who suddenly becomes a single parent of a 6-year-old son after his wife leaves him. Ted Kramer (Dustin Hoffman) eventually adjusts to the situation and enjoys raising his son, Billy (Justin Henry), only to face a custody stand-off with his ex-wife (Meryl Streep).
Clip	(0:35:18-0:38:50) In this clip, Ted is setting limits on his son's TV time. At dinner Billy picks at his food. He tests his father's limits by ignoring repeated warnings to eat his food and not leave the table to go for ice cream.
Discuss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ow would you respond to a situation in the exam room where a parent is not setting limits on their child? 2. Given what you saw in this clip, what advice would you have for Ted about how he might have handled this situation better? 3. What advice would you give a parent who is complaining about a 'picky eater'? 4. How equipped do you feel to respond to parents' questions about their children's behavior? For those who don't have their own children, how can you become more confident in giving advice to parents? What experiences/readings could assist you?

*developed by Anna Pavlov from Medical Education (Alexander, et al., 2005)

<Table 2> Example 2 of cinemeducation – Malingering*

Category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Subcategory	Special situation
Theme	Malingering
Title	E.T.(The Extra Terrestrial)
Actors	Henry Thomas, Robert MacNaughton, Drew Barrymore
Synopsis	This famous movie tells the story of an alien who is befriended by a young boy named Elliott (Henry Thomas).
Clip	(0:25:24-0:27:15) In this scene, Elliott fakes a high temperature.
Discuss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ow common is malingering among children? Why might children engage in this behavior? How would you counsel parents whose children routinely feign illness to avoid school? 2. How is malingering different from factitious disorder? 3. Have you encountered malingering among adult patients? How have you dealt with this problem? How does it make you feel when you discover that patients are exaggerating claims of illness for secondary gain?

*developed by Anna Pavlov from Medical Education (Alexander, et al., 2005)

Alexander 등(2005)는 125개 영화로부터 400가지의 장면을 추출하여 ‘영화의학교육’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여 의학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영화 전체를 다 보아야만 그 흐름이 이해가 되는 것을 영화의 일부분만 봄으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Northington et al., 2005). 이 때 학습 목표에 따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적인 지식을 찾아내는 것은 교육자의 능력이다(Northington et al., 2005). Alexander(1995)는 이미 영화는 다양한 건강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Table 1>과 <Table 2>는 Alexander 등(2005)이 제시한 영화의학교육의 실체를 발췌한 것이다.

결론

과거 문학이 차지했던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영화가 대신하

면서 ‘영상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청소년들은 책 보다는 영상매체에 더욱 익숙해져 있고(김하강, 2010), 이들은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에 능동적으로 영화를 사용할 정도로 영화라는 매체에 익숙하다(박지은, 2006). 그래서 영화는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어, 역사, 윤리, 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김지훈, 2007), 의학, 약학, 사회심리학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효과적인 교육도구로 사용되고 있다(Alexander et al., 2005; Farre, Bosch, Roset, & Banos, 2004; Pinterits & Atkinson, 1998). 국내외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방법으로서 영화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 및 경험적 연구가 있어왔는데 영화는 학습자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 있다(백경숙, 2009). 의학교육에서는 영화의학교육(cinemeducation)이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영화를 활용해왔다. Alexander(1995)는 신체-정신-사회-영적 측면에서 영화의 활용

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영화는 재미있고, 오락적이며, 학습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자기 확신, 다양한 유형의 대화 등을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Alexander et al., 2005).

간호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교육과정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목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히 고려하여 영화를 선택해야 한다. 영화 선택 후에는 영화 전체를 볼 것인가 또는 영화 클립이나 부분적인 장면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 영화를 볼 수 있다면 학습자들은 충분한 토론과 창의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시간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영화를 편집해야 할 것이다.

영화는 간호교육의 이론수업과 실습 영역 모두에 활용할 수 있겠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적용 가능한 주제와 범위에 대한 숙고를 통해 영화활용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영화 자체가 각 과목마다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공학적으로 제작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영화를 교육공학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함에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학제적인 접근과 협력으로 영화 활용 교수-학습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한다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간호교육에서의 영화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화는 강력한 교육도구이다. 새로운 양질의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간호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화는 무궁무진하다. 적극적인 영화의 활용은 전통적인 간호교육의 유용한 교육매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간호사의 임상실습교육, 간호사의 역할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학적인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를 활용한 간호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핵심간호역량의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애 (1998).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의 원리와 적용. *교육이론과 실천*, 8(1), 23-44.
- 교육혁신위원회 (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서울: 대통령자문기구.
- 김도일 (2004). 교육적 영화읽기: 영화와 교회교육. *교육교회*, 320, 17-25.
- 김미원 (2006). 핵심간호능력 중심 간호학실습교육목표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6(1), 389-402.
- 김영한, 계보경, 양혜경 (2003). *교실수업 사이버학습 연계의 커뮤니티 기반 탐구학습 사례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 김지훈 (2007). 영화활용수업의 사례와 방법 연구. *교육과학연구*, 38, 115-132.
- 김하강 (2010).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광주.
- 위키백과 (2010). *영화 - 영화의 역사*. Retrieved May 1, 2010, from the Wikipedia Web site: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D%99%94>
- 박지은 (2006).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향한 통합적 영화교육과정 연구. *예술교육연구*, 4, 11-29.
- 백경숙 (2009). 변이여 교육을 위한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My Fair Lady)의 효용성 고찰. *STEM*, 10(1), 119-145.
- 소경희 (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이명근 (2005). 영화의 교육적 활용. *미래교육연구*, 18(1), 1-26.
- 이미식, 이태운 (2008). 영화를 활용한 도덕과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27, 129-152.
- 장혜림 (2007).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ICT 활용 미술 감상수업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원.
- 한국간호평가원 (2010). *4년제 간호학과 인정평가 기준 - 간호교육 인증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Retrieved May 1, 2010, from th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Web site: <http://www.kabon.or.kr/kabon02/index04.php>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9월).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탐색을 위한 세미나 - 미래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ORM 2008-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황성원, 고봉만 (1999, 10월). *영화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 프랑스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 Alexander, M. (1995). Cinemeducation: An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multi-cultural diversity in medicine. *Ann Behav Sci Med Educ*, 2, 23-28.
- Alexander, M., Lenahan, P., & Pavlov, A. (2005). *Cinemeducation: A comprehensive guide to using film in medical education*. Oxford, UK: Radcliffe Publishing.
- Alexander, M., & Waxman, D. (2000). Cinemeducation : Teaching family systems through the movies. *Fam Syst Health*, 18, 455-466.
- Carpenter, J., Stevenson, B., & Carson, E. (2008). Creating a shared experience using movies in nursing education. *Nurs*

- Educ*, 33(3), 103-104.
- Charon, R. (2001).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Narrative medicine : a model for empathy, reflection, profession and trust. *JAMA*, 286, 1897-1902.
- Farre, M., Bosch, F., Roset, P. N., & Banos, J. (2004). Putting clinical pharmacology in context: The use of popular movies. *J Clin Pharmacol*, 44, 30-36.
- Greenhalgh, T., & Hurwitz, B. (1998). *Narrative based medicine: Dialogue and discourse in clinical practice*. London: BMJ Books.
- Higgins, J. A., & Dermer, S. (2001). The use of cinema in marriage and family counselor education. *Counsel Educ Supervis*, 40, 183-193.
- Hyde, N. B., & Fife, E. (2005). Innovative instructional strategy using cinema films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BNF J*, 16(5), 95-97.
- Mattingly, C., & Garro, L. (2000). *Narrative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illness and hea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rthington, L., Wilkerson, R., Fisher, W., & Schenk, L. (2005). Enhancing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using aesthetics. *J Prof Nurs*, 21(1), 66-71.
- Pinterits, E. J., & Atkinson, D. R. (1998). The diversity video forum: An adjust to diversity sensitivity training in the classroom. *Counsel Educ Supervis*, 37, 203-216.
- Silenzio, V. (2002). Things mu VCR never told me: Film studies and narrative medicine. *STFM Messenger*, 22, 2-3.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 for Nursing Education: Cinemeducation

Oh, Jina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Science

Purpose: Recently teaching nursing to undergraduate students has been based on the constructive teaching method to achieve the core nursing competency. Therefore, non-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for a stimulated interaction between the lecturer and students and to increase information retention and interest in nurs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view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cinema in nursing education. **Method:**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grasp the definition of cinemeducation and to identify the uses, merits, and demerits of using cinema in nursing education. **Conclusion:** Cinemeducation is an innovative approach to teaching multi-cultural diversity in medicine and nursing. It is possible to conduct cinemeducation to deepen student's understanding of cross-cultural issues and to evoke imagination, empathy, and narrative. Movies are funny, entertaining, and readily enjoyed by learners. Since individuals portrayed in movies are not real, learners can be more honest and objective about their reactions to these characters. In addition, movies as instructional media are economical. I would like to suggest more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use of movies.

Key words : Cinema, Education, Nursing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Jina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Gaegum 2-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33 Fax: 82-51-896-9840 E-mail: ohjina@inje.ac.kr